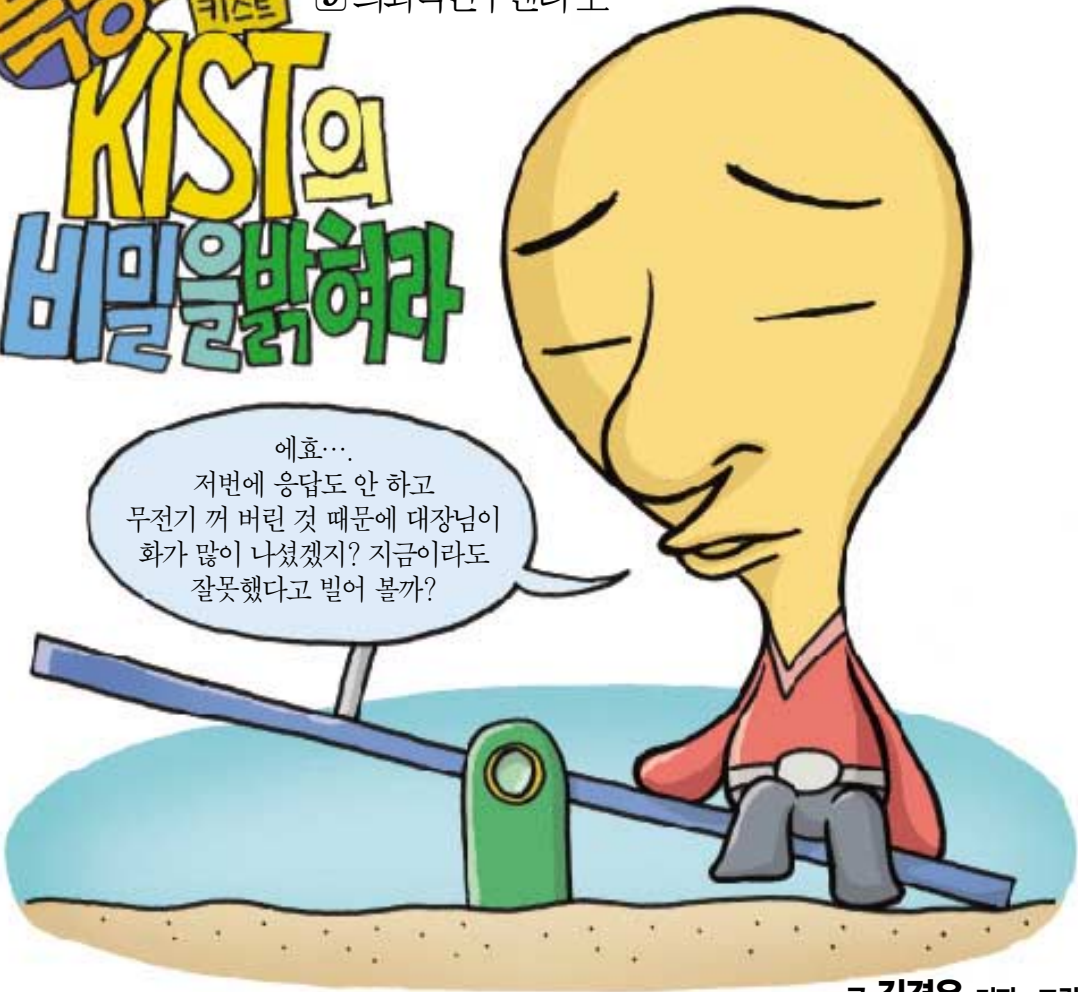


특대 특대 키스트  
**KIST의 비밀을 밝혀라**

9 의과학연구센터 上



글 김경우 기자·그림 김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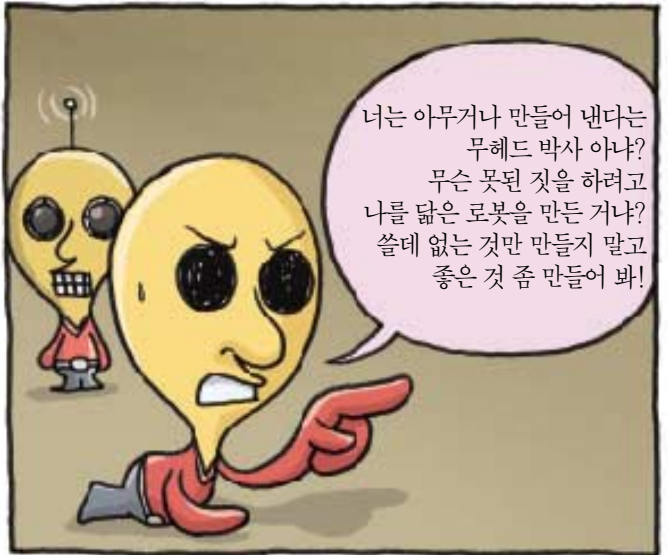
지난 줄거리 : 붉은별군단 기지에 침입한 스틸로는 우여곡절 끝에 바이오 심장 판막을 손에 얻는다. 하지만 스틸로는 심장병에 걸린 어린 소녀의 얼굴을 떠올리고... 결국 스틸로는 명령을 거역하고 소녀에게 바이오 심장 판막을 건네준다. 과연 그 행동에 대한 대장의 반응은...?







크하하!  
스틸로, 놀랐나?  
인공심장을 못 구하는  
바람에 따로 조종을  
해 줘야 하는  
불편함은 있지만  
성능은 훨씬 뛰어난  
로봇을  
만들었지.



너는 아무거나 만들어 낸다는  
무헤드 박사 아냐?  
무슨 못된 짓을 하려고  
나를 닮은 로봇을 만든 거냐?  
쓸데 없는 것만 만들지 말고  
좋은 것 좀 만들어 봐!



우히히! 너도 알고 있군. 그래, 맞아!  
나는 아무거나 다 만들어 낼 수 있지! 난 우주  
최고의 천재박사거든!!



호~, 그나저나  
나를 닮아서 잘 생겼군.  
디자인을 잘 했네.

안 듣고  
있었냐...?



역시 소문대로  
산만하기  
그지없군.  
아휴~



로봇 스틸로!  
저 녀석을 아주  
매콤하게  
흔내 줘라!!







## 의과학연구센터

우리 의과학연구센터는 의학과 과학 그리고 공학의 만남이 이뤄지는 곳이야. 1993년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의료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공헌을 했지. 우리가 의과학을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환자가 고통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야. 의료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 고통스럽게 병마와 싸우는 사람들의 수는 헤아릴 수도 없지. 암에 걸린 사람의 경우만 봐도 암을 치료하는 항암제가 얼마나 독했으면 환자의 머리카락이 다 빠져 버리겠냐구. 그리고 수술을 할 때도 조금씩 절개하면 될 걸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해서 많이 절개하는 경우도 많다고. 환자가 얼마나 아프겠어.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고통을 최소한 적게 받을 수 있게 하고, 또 병을 최대한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지. '실시간 분자영상 기술', '먹는 항암제', '주문형 인공관절' 등이 환자들 병을 더 쉽고 빨리 이겨 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.



의과학연구센터장 최귀원 박사



